



# 프랑스 혁명

---

## ■ 프랑스 혁명의 경과

- 국민 의회 (1789-1791): 봉건적 특권 폐지, 인권 선언, 미라보 라파예트
- 입법 의회 (1791-1792): 입헌 군주정, 혁명전쟁, 지롱드 파 우세
- 국민 공회 (1792-1795): 급진 공화정, 공포 정치, 자코뱅 파 우세
- 총재 정부 (1795-1799): 온건 공화정, 정치 불안, 나폴레옹 등장

## ■ 프랑스 혁명의 원인

- 근본적으로는 구체제 (ancien régime)의 모순
- 직접적으로는 미국 독립혁명 지원으로 인한 프랑스 재정의 위기
- 산업 사회의 발달로 인한 신흥 부르주아지의 성장



이 농이간공 권 미래 혁명은 의의인 의의인

## ■ 구체제(Ancien Regime)

- 절대주의 시대의 근대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가 귀족적이고 봉건적인 요소와 세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음.

제 1신분 : 2800만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1%도 안됨. 국민의 정신적 교화와 지도 담당. 교회는 민사 행정, 호적 사무 담당. 중요한 통계 기록 보존. 빈민 구제와 교육제도 관장. 주교, 대주교, 추기경 등 교회의 지배자 위치는 주로 귀족이 차지. 제 3신분에 동조하는 하급 성직자들도 많았음.

제 2신분: 2%미만인 귀족 계급은 전 토지의 40%를 소유. 연금 수령. 관직 독점. 면세 특권.

## ■ 구체제(Ancien Regime)

- 제 3신분 (평민): 농민 약 2000만, 시민 (bourgeoisie)450만

중앙집권이 일찍이 확립된 프랑스의 경우 농민의 농노 해방은 13세기에 이루어짐. 따라서 신분적으로는 자유. 토지 상속과 증여 매매와 대차 가능. 그러나 봉건적 예속이 여전히 있었음. 지주의 토지에 얽매임. 제 3신분은 소수의 부르주아 계층이 주도권 장악.

시민은 귀족에 못지않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부르주아지는 원래 중세 성곽에 거주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경제력을 통해 자치권을 획득해 성에 거주하여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도시의 금융업, 대상인, 대제조업자, 자유 직업인, 부농등임. 이들은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면세 특권에 분노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분개함 이들은 정치적 기회를 요구함.

## ■ 혁명의 직접적 원인 : 재정난과 루이16세의 삼부회 소집

- 루이 14세 말년부터 재정난
- 루이 15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쟁, 7년 전쟁
- 루이 16세의 미국의 독립혁명 지원등으로 막대한 전비 지출.
- 아메리카의 독립은 프랑스 내의 왕정에 대한 반발이 증대
- 조세 제도에 있어서 귀족의 면세는 적자 재정 악화

## ■ 혁명의 직접적 원인 : 재정난과 루이16세의 삼부회 소집

- 루이 16세는 1774년 20세에 왕위에 오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정 개혁을 단행하려 하나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
- 튀르고 (Turgot)는 긴축재정, 공채 발행, 국내 관세 폐지와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길드의 독점권 제한, 곡물 거래 자유, 세제 개혁을 통한 평등 과세 실현 등을 추진했으나 왕실과 귀족의 반대로 실패
- 네케르 (Necker), 카론느 (Caronne), 브리엔느 (Brienne) 등의 재정 정책도 귀족의 반대에 부딪힘.

## ■ 혁명의 직접적 원인 : 재정난과 루이16세의 삼부회 소집

- 1786년 8월 카론느는 전국민에 대한 평등 과세를 제안.
- 루이 16세는 모든 토지에 대해 그 소유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과세한다는 조치를 내림.
- 파리고등법원에서 이러한 국왕의 요구가 거부됨.
- 왕실과 귀족들로 구성된 명사회 소집. 카론느의 새로운 토지세안에 반발. (1787년 2월) 카론느는 4월에 사임.
- 브리엔느 재무장관도 비슷한 개혁 시도하려다 역시 고등법원에 반대에 부딪힘. 그러자 브리엔느는 1788년 5월 파리고등법원이 가지고 있던 칙령등기권과 각종 행정권을 박탈함.

## ■ 혁명의 직접적 원인 : 재정난과 루이16세의 삼부회 소집

- 이에 대해 귀족들은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만이 세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
- 귀족들은 삼부회를 통해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 권력 회복을 겨냥함.
- 제 3신분도 호응함.
- 국왕은 1788년 8월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1614년 루이 13세 이래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를 1789년 5월 1일에 소집하기로 약속.
- 1789년 2월부터 프랑스 각지에서 삼부회 선거가 실시.

## ■ 삼부회(États-Généraux)

- 13세기 합동대표제의 발전과 국왕에게 자문과 원조를 하던 전통.
- 백년전쟁 기간에 이미 삼부회는 단지 왕에게 고분고분히 동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 회의는 1350년대에 행정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으나 부르주아 개혁가 에티엔 마르셀이 암살되고 지방간의 불화가 생겨 실패.
- 15세기에도 가끔 전국적인 삼부회가 소집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방삼부회가 그 기능을 대신했다. 지방삼부회는 소집·관리가 쉬웠으며 지역의 관습을 유지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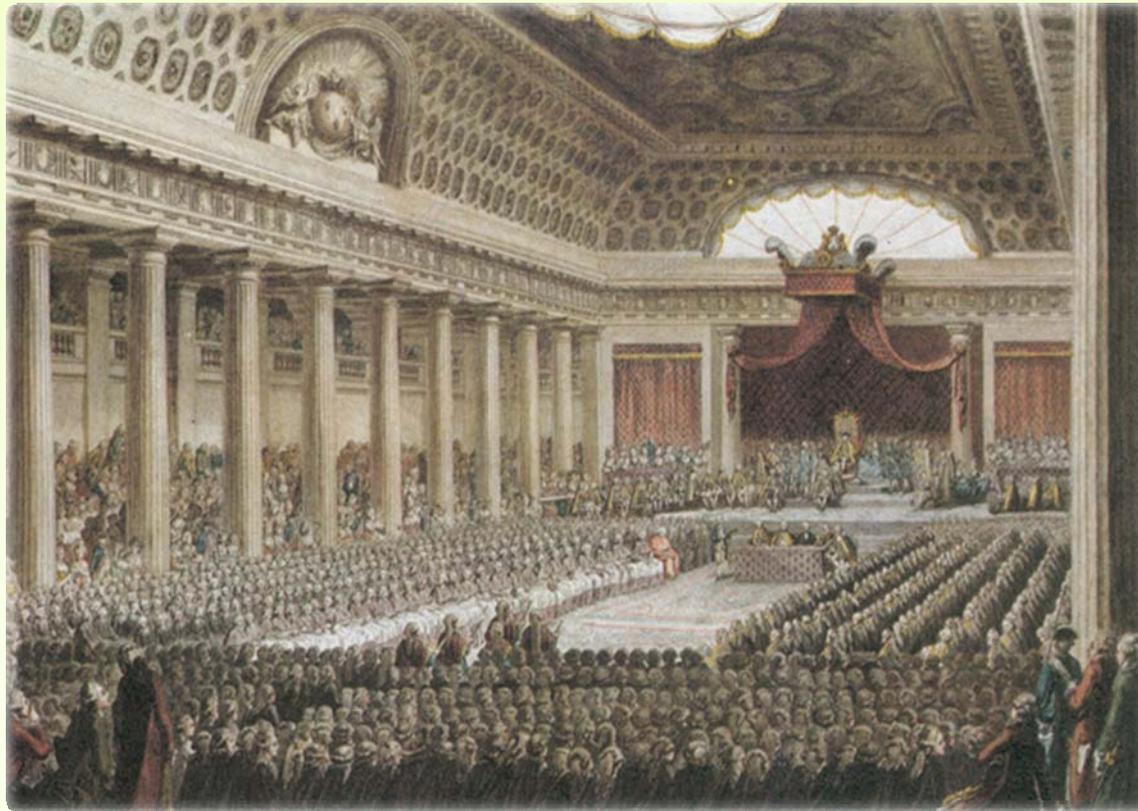
## ■ 삼부회(États-Généraux)

- 15세기에도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함.
- 프랑스 전역에서 영구적 직접세(인두세)를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1500년 이후 평상시에는 삼부회가 없어도 별 상관이 없었으며, 프랑수아 1세(1515~47 재위)는 한번도 삼부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후 삼부회는 16세기말의 종교전쟁과 같은 위기가 있을 때만 소집.
- 루이 13세의 미성년기에 소집된 1614년 삼부회는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3계급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는 큰 약점을 드러내주었다. 제3신분은 귀족들이 몇몇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삼부회 대표직에 대해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폐지하자는 결의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나서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 ■ 혁명의 직접적 원인 : 재정난과 루이16세의 삼부회 소집

- 삼부회 선거에서 1신분의 2/3가 하위 성직자가 선출되고 귀족에서도 자유주의적 귀족들이 선출되어 3신분은 1,2신분에서 동조자를 많이 발견.
- 그러나 삼부회의 심의 표결 방식은 1614년 방식을 따르기로 함. 이는 3신분에게 불리함. 1,2 신분이 공조하여 2:1로 패할 것이 분명. 따라서 머리수 표결과 3신분의 수를 두배로 늘릴 것을 주장.
- 제3신분의 대표자 수가 두배로 늘었으나 심의 및 표결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함.

■ 루이 16세의 삼부회 소집(1789년 5월 5일)



## ■ 루이16세의 삼부회 소집

- 삼부회의 대표자수는 성직자 308명, 귀족 285명, 평민 621명이 모임.
- 제 3신분의 대표자들은 부유한 상층 평민(부르주아)가 대부분이고 농민 및 수공업자의 대표는 없었음.
- 삼부회가 1789년 5월 5일 소집되자마자 표결문제로 난항을 겪음.
- 삼부회 직후 3신분의 지도자들은 왕의 태도에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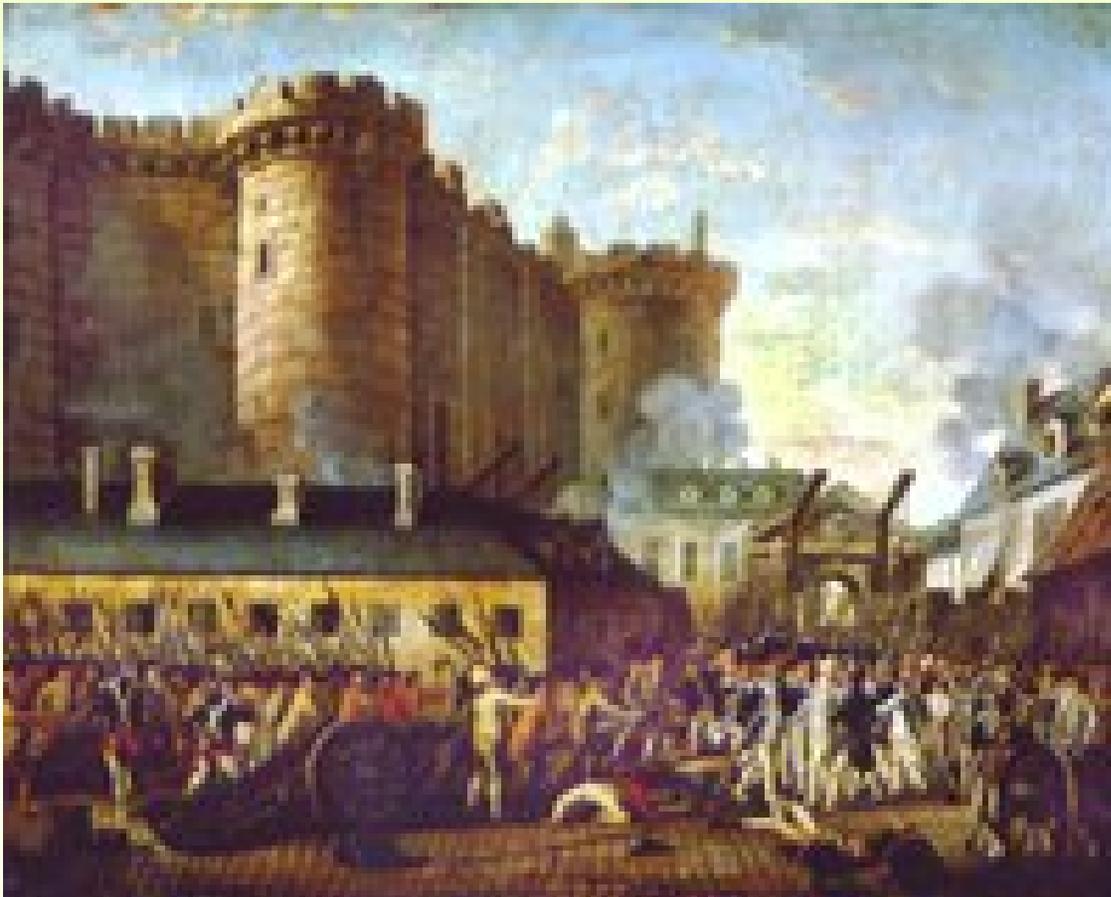
## ■ 부르주아들의 정구장 서약과 국민의회 구성

- 평민 대표들은 머리수 표결을 요구하며 따로 모여 6월 17일 스스로를 국민의회라고 선언.
- 6월 20일 국민의회는 프랑스 왕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실시할 때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정구장에서 선언함.
- 6월 23일 루이 16세는 삼부회 합류를 위해 국민 의회를 승인.
- 7월 9일 제헌의회라고 선언하고 헌법제정에 착수
- 루이 16세는 군대를 베르사이유 주위에 집결. 7월 11일 네케르 파면.
- 국민의회를 지지하는 과격한 파리 시민들이 절대주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
- 파리에 이어 전국의 도시에서 도시 자치체를 결성하여 부르주아가 시정 장악

■ 부르주아들의 정구장 서약(1789년 6월 20일)



■ 바스티유 감옥 습격(1789년 7월 14일)



■ 바스티유 감옥 습격(1789년 7월 14일)



■ 바스티유 감옥 습격(1789년 7월 14일)



## ■ 루이 16세의 파리 귀환



- 루이 16세는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복귀하고 새로 결성된 코뮌을 인정
- 루이 16세는 국왕을 상징하는 흰색과 파리시의 상징인 붉은 색과 청색으로 된 프랑스 3색 휘장 인정 (cocarde tricolore)

## ■ 프랑스 인권 선언(1789년 8월 26일)

- 국민 의회는 8월 4일 봉건적 제 특권의 폐기 선언
- 농민들의 지대 납부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봉건제 종식
-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채택
- 자연권 사상을 표현, 구체제의 종식과 프랑스 혁명이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본 이념과 원리를 표현.
-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와 법적 평등 및 과세의 평등을 규정. 주권 재민의 원리와 재산권 확인 동시에 국가 성립의 목적이 자연권의 보존에 있으며 따라서 압제에 대한 저항도 자연권에 속한다고 선언함.



## ■ 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8월 29일)



제 1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한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 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권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보존에 있다.

제 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국민 속에 있다.

제 4조 자유란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도의 사망 증명서로서, 프랑스의 계몽 사상 특히 루소의 사상을 바탕으로 영국의 권리 장전, 미국의 독립 선언과 더불어 근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 ■ 국민 의회 시대

- 국민 의회가 실제적 권력을 잡고 개혁을 단행했으나 재정 문제 미해결.
- 길드와 같은 동업 조합 폐지, 국내 관세와 통행세 폐지, 귀족 세력의 아성이던 고등법원 폐지, 구체제의 복잡한 행정구역과 사법 구역 정리, 새로운 행정 구역과 통일적인 법원 체계 도입. 1790년 7월 성직자 민사 기본법 제정.
- 1791년 9월 ' 91 헌법 제정 : 능동 시민에게 선거권 부여. 간접선거로 구성된 의회. ' 91년 체제는 부르주아 지배 체제.

## ■ 입법 의회 시대

- 귀족과 성직자들이 프랑스를 떠남.
- 1791년 6월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독일지역으로 탈출하려다 바렌에서 발각되어 파리로 돌아옴.
- 1791년 10월 새로운 헌법에 의해 입법 의회 소집. 입법 의회 의장석을 중심으로 페이양 파(입헌군주파)가 오른쪽에 급진파가 왼쪽에 중간에 온건파가 자리 잡음(좌파와 우파의 기원).
- 입법의회 초기에 페이양 파(입헌군주파)가 주도권을 잡으나 후에 과격한 자코뱅(급진 공화파)이 주도함.
-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혁명 사상 전파가 두려워 프랑스에 군사 개입 시도.
- 프랑스는 1792년 4월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
- 1792년 8월 10일 자코뱅의 지도하에 반국왕 무장 봉기를 일으킴.
- 8월 하순에 전황이 악화되자 반혁명 혐의자 1,000여명을 처형. 과격화함.

## ■ 국민공회 시대

- 1792년 9월 21일 국민공회 소집.
- 9월 21일 왕권 폐지. 9월 22일 공화국 수립 선언. 프랑스 제1 공화국 수립.
- 1793년 1월 루이 16세가 처형됨.
- 유럽의 왕정 국가들에 큰 충격을 줌. 1793년 2월 이후 영국의 주도 하에 대불 동맹 결성. 프랑스는 이미 교전중인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는 물론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와도 전쟁 수행.
- 1793년 3월 반혁명 반란이 방데지방에서 일어나자 자코뱅이 쿠데타와 민중봉기를 통해 지롱드파를 체포하고 국민공회를 완전 장악.
- 자코뱅은 국민공회를 장악하고 6월 하순 ' 93헌법 제정. 능동시민과 수동시민 구분을 없애고 모든 성인 남자에게 선거권 부여. 노동권과 생존권, 실업자와 병약자의 지원 규정. 그러나 이 헌법은 공포정치로 시행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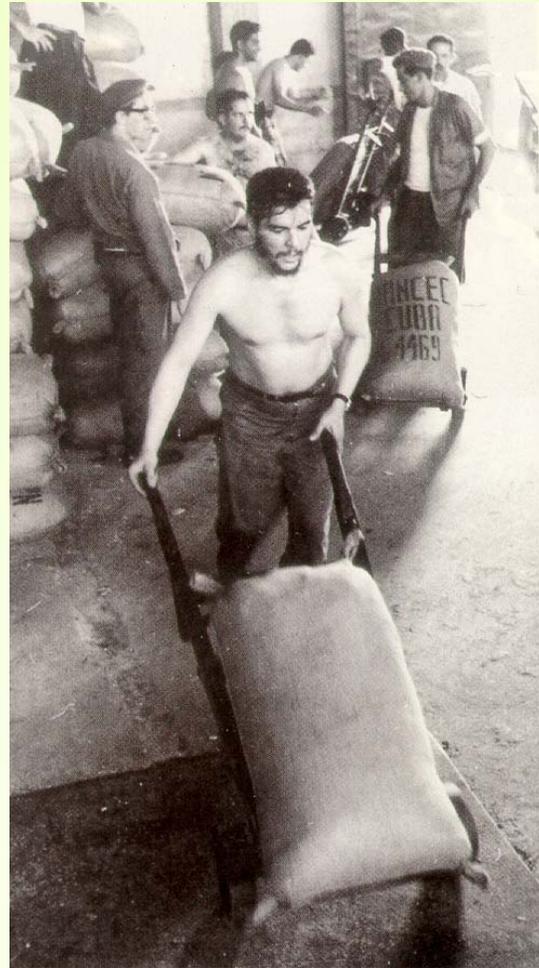
## ■ 국민공회의 공포정치

- '93헌법의 실시를 유보하고 독재적 비상체제 수립. 공포정치 단행.
-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강화하여 강력한 독재 정치를 행함.
- 지롱드파와 반혁명 분자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과 처형 감행.
- 최고가격제 설정, 배급제도 실시, 미터법, 혁명력 제정. 이성을 숭배.
- 혁명정부는 특수의지를 일반의지에 종속시키기 위해 공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
- 1794년 봄에 자코뱅 내부에 당통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한 우파와 에베르를 중심으로 하는 과격한 좌파로 분파.
- 자코뱅 지도자인 로베스피에르는 양파를 모두 숙청하고 권력 독점

■ 로베스 피에로



■ 로베스 피에로



## ■ 데르미도르 반동(1794년 7월 24일)

-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와 공포정치에 대해 반감.
- 프랑스 혁명군의 연이은 승전은 반혁명 세력의 약화 초래하여 공포정치의 명분 상실.
- 혁명으로 이득을 중소 시민은 점차로 수구화하고 에베르 파의 숙청으로 하층 대중은 혁명 정부에 절망.
- 반 로베르스피에르 세력은 1794년 7월 27일 체포하여 처형함.

## ■ 총재정부

- 1795년 8월 ' 95헌법 제정. 유산 계급의 제한 선거에 의한 양원제 입법부와 5명의 총재가 주도하는 행정부.
- 1795년 총재정부 수립.
- 정국불안 지속.
- 혁명으로 이득을 본 시민과 농민들은 그들의 입지를 굳혀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을 바람.

## ■ 나폴레옹 등장

- 1799년 11월 9일 쿠데타를 일으켜 무력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 장악.
- 1789년 제 3신분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법률화됨.
- 10년간의 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회정부를 일시 유보할 용의를 가짐.

## ■ 프랑스 혁명의 경과



## ■ 프랑스 혁명의 경과

- 루이 16세의 삼부회 소집(삼부회는 1614년 이후 소집하지 않았음)
- 3신분이 머리수 표결을 요청, 정구장 서약을 함. 1789년 6월 20일.
- 루이 16세 국민 의회 승인, 7월 9일 제헌 의회 헌법 제정.
- 루이 16세 평민들의 지지를 받던 네케르 파면, 베르사이유 수비 증강
- 파리 시민들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 국민 의회 8월 26일 프랑스 인권 선언 발표.
- 국민 의회 1791년 9월 '91헌법' 제정 -> 능동 시민에게만 참정권 부여
- 1791년 10월 1일 입법 의회 소집
- 1792년 4월 지롱드당 혁명 전쟁 오스트리아에 대해 선전 포고
- 1792년 8월 10일 급진 세력 반국왕 봉기

## ■ 프랑스 혁명의 경과

- 1792년 9월 21일 국민 공회 소집 왕권 폐지
- 1792년 9월 22일 제1 공화국 수립.
- 1793년 6월 1일 헌법 실시 유보. 자코뱅 당 공포정치 실시.
- 자코뱅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지롱드당같은 온건파 및 반 혁명 세력 처단.
- 1794년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 체포
- '95년 헌법에 의한 총재 정부 수립(양원제 입법부와 5명의 총재)
-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쿠데타 성공

## ■ 프랑스 혁명 중 3헌법

- 1791년 입헌군주정 단원제 제한 선거
- 1793년 입헌군주정 단원제 보통 선거
- 1795년 입헌공화정 양원제 제한 선거

## ■ 버크의 보수주의

- 버크(Edmund Burke)는 명확한 역사주의 사상을 보여주었다. 그가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 (1790)에서 표명한 바는, 국가란 유기적으로 발전해 가는 존재이며, 기존의 제도들이란 오랫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들을 이성적으로 일시에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는 비역사적이라는 것.
- 이러한 견해는 그가 혁명의 영향과 그 전파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제시한 것으로서 그 근거에는 각 국가의 역사적 차이점을 강조하는 전통주의적·상대주의적 사상이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적 전승을 보존하고, 또한 계속 형성시켜가야 한다는 보수주의 정치사상의 선구자임.

## ■ 버크의 보수주의

- 첫째로 버크는 혁명의 진행 과정을 논하면서 그 지도자들의 성격과 동기와 정책들을 분석했다. 한층 깊이 들어가 그는 혁명 운동을 고무하는 근본적인 이상들의 분석을 시도했으며, '인간의 권리'와 민중의 통치라는 혁명의 개념들을 집중 겨냥하여 추상적이고 단순한 수의 지배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세습 귀족들의 책임있는 리더십에 의해 통제되고 지도되지 않을 때 일으킬 위험들을 역설.
- 더 나아가 그는 혁명가들의 합리주의적 · 이상주의적인 기질 전체에 도전했다. 단순히 종래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그는 나아가 혁명의 도덕적 열기와 정치 재건이라는 거창한 투기적 계획들이 전통과 전래의 가치들을 평가절하하고 애써 획득한 사회의 물질적 · 정신적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

## ■ 버크의 보수주의

- 이런 일체의 무분별에 대응하는 분별의 표본으로 그는 영국 헌법의 모범과 가치를 내세웠다. 영국 헌법은 지속성과 비조직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순전히 이론적인 혁신이나 추상적인 권리보다 전통적인 지혜 및 관례와 시효에 의해 획득되는 권리를 존중하며, 신분과 재산의 계층 구조를 수용하며, 세속의 권능을 종교적으로 성별하고 모든 인간적인 공헌의 근본적인 불완전성을 인정한다고 그는 열거함.

## ■ 프랑스 혁명의 정통주의와 수정주의

- 프랑스 혁명에 대한 정통주의적 해석은 봉건적 특권 사회를 평등한 시민 사회로 전환시킨 사회 혁명이었다고 본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 정통사가들은 혁명에 의해 절대 군주가 타파되고 계몽사상이 전반에 확산.  
소규모 생산자에게도 안정된 경제 기반을 제공해서 자본주의 발달 계기

## ■ 프랑스 혁명의 정통주의와 수정주의

- 프랑스 혁명에 대한 정통주의적 해석은 봉건적 특권 사회를 평등한 시민 사회로 전환시킨 사회 혁명이었다고 본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 수정주의 역사가들은 정통주의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프랑스 혁명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라고 비판.
- 수정주의자들이 보기에 프랑스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었음.
- 이러한 해석은 코반(Alfred Cobban)에 의해 제기. 18세기 프랑스에는 영주제적 잔재가 있긴 했으나 혁명적 부르주아가 타파했다는 봉건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혁명이 자본주의 성장을 방해함.

## ■ 프랑스 혁명의 정통주의와 수정주의

- 코반은 국민의회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혁명을 일으킨 세력이 부르주아인 자본가들이 아니라 대부분 관리와 자유 전문직 종사자라고 주장. 즉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는 것임.
- 프랑스 역사가 푸레는 당시 혁명 세력은 부르주아가 아닌 급진적 엘리트층 이라고 봄. 1791년 이후 민중들의 과격한 혁명은 혁명의 본래 궤도를 벗어났다고 봄.
- 정통사가들이 근대화를 가져온 사회혁명으로 보았다면 헌트는 혁명을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가져온 정치 혁명으로 의미를 축소함.

## ■ 프랑스 혁명의 정통주의와 수정주의

- 수정주의자들은 18세기의 프랑스가 봉건적이라기 보다 전제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봄. 따라서 혁명을 전제정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적인 요구들의 정치적 분출로 보는게 낫지 않는가라고 봄.



## I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 1 대불동맹과 프랑스혁명전쟁
- 2 나폴레옹과 유럽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의 시대 도래

총재 정부 밑에서 이태리(1796)와 이집트 원정(1798)으로 명성을 얻게 된 나폴레옹은 총재 정부를 타도하고 통령 정부를 수립.

- 통령 정부 : 4개의 입법 기관과 3명의 임기 10년의 통령으로 구성됨.
- 나폴레옹은 제 1통령 으로 실권을 장악했으며, 1802년에는 종신 통령이 되었음.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나폴레옹의 대관식(1804; 프랑스 제1제정)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의 시대 도래

#### 나폴레옹의 정치 분석

내치 : 중앙집권 강화, 프랑스 은행 설립, 경제의 안정 도모  
로마 교황(피우스 7세)과 화약을 맺어 가톨릭 교회 부활.

나폴레옹 법전 편찬 -> 프랑스 혁명의 성과 종합

나폴레옹 법전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상법의 5대 법전으로 되어있음. 특히 민법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개인의 책임, 신앙과 노동의 자유, 만인의 법 앞에 대한 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외치 : 오스트리아 군을 격파(1801), 제 2차 프랑스 동맹을 해체 시킴 (1802)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의 시대 도래

#### 제 1제정 성립

나폴레옹은 1804년 국민 투표에 의해 황제가 되어 나폴레옹 1세로 즉위

- 제 3차 대 프랑스 동맹 결성: 영국의 제창으로 제 3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 됨
- 트라팔가르 해전(1805):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패함.
-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 격파함, 신성로마제국 해체(1806).  
틸지트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와 프로이센 굴복 시킴.
- 대륙 봉쇄령 : 영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
- 러시아 원정 단행 : 대륙봉쇄령을 지키지 않는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함.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으나 혹한과 초토전술에 말려 실패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의 몰락

- 제 4차 대 프랑스 동맹군의 침입  
러시아 원정 실패를 계기로 제 4차 대 프랑스 동맹이 결성  
각 국 왕조들이 나폴레옹을 타도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됨. 동맹군은 나폴레옹을 라이프치히에서 격파(1813)하고 파리를 점령하 엘바 섬에 나폴레옹을 유배시킴.(1814)
- 나폴레옹의 몰락  
다음 해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탈출하여 재기를 꾀하였으나 제 5차 대 프랑스 동맹이 조직되어 프랑스를 침입했다. 나폴레옹은 워털루에서 영국군과 프러시아의 연합군에게 패해 대서양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다.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대불동맹과 조약들

- 제 1차 대불 동맹 (1793-97) 캄포폴리오 조약
- 제 2차 대불 동맹 (1799-02) 아미엔 화약
- 제 3차 대불 동맹 (1805) 프레스부르크 조약
- 제 4차 대불 동맹 (1806) 틸지트 조약
- 제 5차 대불 동맹 (1813-1815) 나폴레옹 격파, 워털루 싸움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제 1차 대불동맹

- 제 1차 대불 동맹 (1793-97) 캄포폴리오 조약
- 1차 대불 동맹은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스웨덴,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의 제후등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가담. 국민 공회 시대에 프랑스 혁명군은 네덜란드와 라인란트 점령. 1795년 네덜란드에 바타비아 공화국을 세워 프랑스 보호국으로 삼음.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개별 강화를 맺음.
-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 혁명군 제 3군은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킴. 1797년 10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캄포포르미오 조약 체결.
-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즉 벨기에와 북부 이탈리아 일부 지역 획득. 비밀조항으로 라인 좌안을 얻음.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제 2차 대불동맹

- 제 2차 대불 동맹(1799-02) 아미엔 화약
- 1798년 12월 영국 총리 피트의 주창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 나폴리, 포르투갈, 오스만투르크가 가담하여 성립.
- 집정 정부를 수립한 나폴레옹은 대불 동맹의 중심국가인 오스트리아를 토벌하여 패배시킴. 1801년 2월 뤼네빌 조약은 캄포포미오 화약을 재확인하고 비밀조항인 프랑스의 라인좌안 획득과 독일 제후들의 영토의 재조정 시행됨.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제 3차 대불동맹

- 제 3차 대불 동맹(1805) 프레스부르크 조약, 라인동맹 결성.
- 정계에서 물러났던 피트가 복귀하면서 다시 대불 동맹 결성.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사이에 결성.
- 영국상륙은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에서 패해 단념.
- 오스트리아 원정하여 1805년 12월 아우스테를리츠 싸움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국 대파.
- 프레스부르크 조약을 체결, 독일내 제후들의 영토 일대 개편
-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에 대항하는 독일의 제3의 세력인 라인 동맹 결성.
- 1806년 8월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서 퇴위함.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제 4차 대불동맹

- 제 4차 대불 동맹(1806) 틸지트 조약
- 1806년 9월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사이에 결성.
- 10월 나폴레옹은 프러시아와 러시아군을 대파함.
- 10월 27일 베를린을 점령하고 프러시아에게 굴욕적인 틸지트 조약 강요.
- 이로 인해 프러시아는 영토가 절반 줄어들고 군비 제한, 막대한 배상금 부과 됨.
- 11월 21일 영국에 대한 대륙봉쇄령을 발표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제 5차 대불동맹

- 제 5차 대불 동맹(1813-15) 나폴레옹 격파, 워털루 싸움
-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위반하고 영국과 무역을 계속하자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1812년 6월 60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원정함.
- 그러나 동장군과 초토 전술에 의해 러시아 원정의 실패 .
- 유럽 각국은 5차 대불동맹 결성. 라이프치히에서 나폴레옹 격파함.
- 대불동맹군은 프랑스를 침공하여 1814년 3월 파리를 함락함.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의 100일천하

- 1814년 4월 11일 나폴레옹 퇴위하고 5월 4일 엘바섬으로 유배됨.
- 부르봉 왕조의 복귀와 전쟁 수습을 위해 빈회의 개최하자 프랑스 내에서 반동 정치에 불만이 증대됨. 이러한 점을 간파한 나폴레옹은 1815년 3월 엘바섬을 탈출해 프랑스에 귀국해 권력을 회복함.
- 1815년 6월 벌어진 워털루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6월 22일 다시 폐위되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1821년 5월 사망함.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의 100일천하

- 1814년 4월 11일 나폴레옹 퇴위하고 5월 4일 엘바섬으로 유배됨.
- 부르봉 왕조의 복귀와 전쟁 수습을 위해 빈회의 개최하자 프랑스 내에서 반동 정치에 불만이 증대됨. 이러한 점을 간파한 나폴레옹은 1815년 3월 엘바섬을 탈출해 프랑스에 귀국해 권력을 회복함.
- 1815년 6월 벌어진 워털루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6월 22일 다시 폐위되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1821년 5월 사망함.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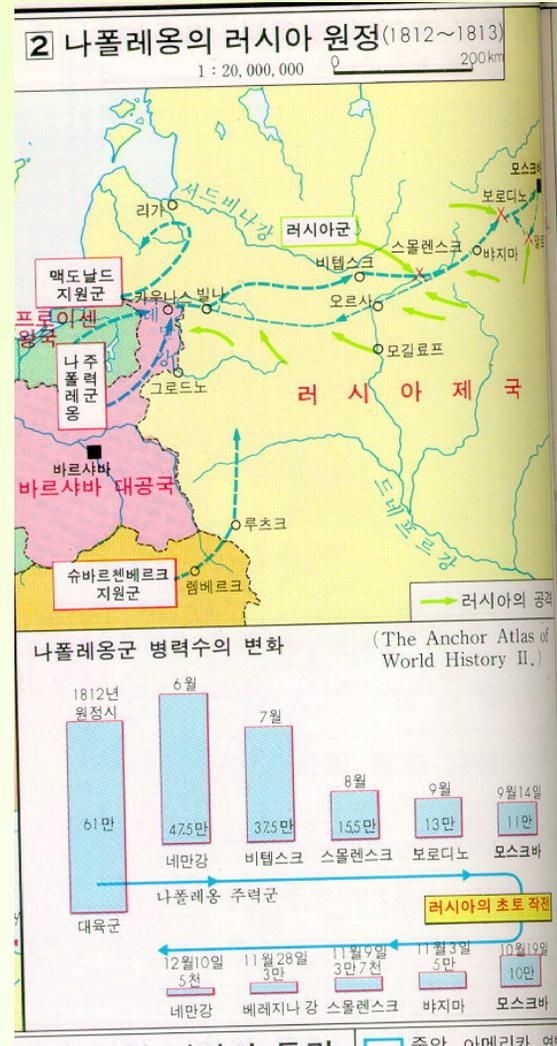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 1.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 나폴레옹과 자유주의, 국가주의

- 프랑스 혁명의 혼란을 수습하여 부르주아에게 유리하게 확정지음.
- 각 국의 민중들에게 평등의 이념을 전파. 19세기의 Nationalism 고취
- 봉건 사회에 익숙해 있던 민중들에게 제후와 영주의 속박에서 벗어난 평등한 사회를 각인시킴.
- 유럽의 nationalism은 모든 민중이 평등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시도임.
- 결코 왕이 지배하는 군주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님.
-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은 각 국의 자유주의 이념과 nationalism을 고취 시킴.